

1. First of all, can you share with us the pivotal moment or experience that led you to transition from a programmer to a sculptor?

우리는 일상의 언어로는 도저히 '형언할 수 없는' 것들에 이끌려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문명을 이끌어가는 거대한 두 축을 꼽자면 인공지능과 양자역학을 들 수 있을 텐데요, 이것들이 동작하는 원리는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저는 학부시절 프로그래밍에 깊게 빠지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한계에 대해 일찍 눈을 떴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깊게 몰입할 때에는, 굳이 제가 사용하는 한국어나 영어를 빌리지 않고도, 오직 수학과 논리의 언어만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직감하고 기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가령, 다음과 같은 프로그래밍을 작성할 때에는

```
vec3 applyFog( in vec3  rgb,
              in float distance,
              in vec3  rayDir,
              in vec3  sunDir )
{
    float fogAmount = 1.0 - exp( -distance*b );
    float sunAmount = max( dot( rayDir, sunDir ), 0.0 );
    vec3  fogColor = mix( vec3(0.5,0.6,0.7),
                        vec3(1.0,0.9,0.7),
                        pow(sunAmount,8.0) );
    return mix( rgb, fogColor, fogAmount );
}
```

제 마음속에 (굳이 사람의 언어로 풀이하자면) 다음과 같은 심상이 떠오르곤 하죠. '먼 풍경에 안개가 자욱하다. 해를 등지고 바라보는 안개는 붉다. 붉은 안개를 마주하는 것은 태양과 내가 상당히 나란히 서있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일이니, 운이 좋다.' 이러한 초월 언어적 체험이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의 언어가 세상을 기술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아니라는 생각이 갖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저로 하여금 언어 밖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언어의 경계에 대해 질문하고 탐구하는 예술가가 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2. Your work aims to exist beyond language and provoke feelings of ambiguity and discomfort in the viewer. Why do you think this approach is an effective way to question the broader world that is not captured within the frame of language?

1911년에, 현대 과학을 이끄는 중요한 이론인 양자역학은 아직 과학계에 의해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인류 역사상 가장 천재적인 인물 중 하나인 아인슈타인은 그의 후배인 보어에게 분개했습니다. 보어는 양자 세계에서 그의 발견들을 설명하고 있었지만, 아인슈타인은 그것들이 인과관계의 전통적인 개념을 따르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것들을 거짓이라고 일축했던 것이죠. 그의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보어의 연구는 양자 역학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고 오늘날 과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죠.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 설명할 때에는 보통 그것의 인과를 파악하려 하죠. 그러나 이 인과라는 것의 정체를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세상에 발생한 어떤 사건을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의 체계 속에 가두려는 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현재의 언어는 세상의 현상을 기술할 수 있는 완벽한 수단이 아니에요.

저는 저의 작업을 보는 이들이 도저히 작업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라 질문을 물을 때나, 제가 만든 마네킹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혹은 살아있는 것인지 죽어있는 것인지 너무나도 애매하여 불쾌하다는 소감을 말할 때 제 의도가 정

확히 들어맞았다는 희열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불쾌함이야말로, 제 작업이 viewers의 언어체계 속에 가두어지지 않은 '언어 밖' 존재로 남아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죠.

3. In your artist statement, you mention the limitations of human language in describing the world, particularly in relation to artificial intelligence and quantum mechanics. How do you believe art can help us explore and understand aspects of the world that are difficult or impossible to express through language alone? Can you share any specific examples or experiences from your own work that demonstrate this?

와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감탄했어요.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선, 과연 예술이 행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각자만의 답이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답은 이렇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예술은 대화예요. 사람들 사이에 대화를 일으키는 촉매제로서 제 작품이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는 생각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죠. 그런 맥락에서 제 작품은 우리가 가진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전혀 뜻밖의 사건을 일으킴으로써 일상적 언어와 사고에 균열을 일으키는데 그 역할이 있다고 봐요. 차이를 발생시키는 거죠. 내가 왜 이 작품이 기분 나쁘지? 이 작품이 도대체 말하려는 게 뭐지? 이것 어떻게 언어로써 형용하지? 와 같은 제 작품을 보면서 일어날 마음속의 질문들이 곧 우리가 가진 언어의 한계라던가, 우리가 가진 언어 밖에서 존재할 수 있는 존재자에 대한 대화를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드리고 싶지만, 그것은 작품 해석에 대한 일종의 정답을 만드는 행위처럼 느껴질 수 있어 관람객의 다양한 해석을 억압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생각과 그로 인한 생각들의 차이에서 일어나는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구체적 작품의 예시를 드는 행위는 자제하도록 할게요.

4. In your work, "THE LOVERS," you explore the concept of a recursive link between two watering cans, symboli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you' and 'me.' Can you explain the inspiration behind this piece, and how it reflects the fluidity and interconnectedness of human relationships?

이 역시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고자 하는 과정의 일환이었습니다.

과학에서 양자 얽힘이라는 개념이 참 흥미롭더라고요.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 곰곰이 생각을 하던 중, 일상의 단어에는 “분명 서로 다른 두 개이나, 두 개라고 부르기에는 마치 하나처럼 연결 지어진 것”을 지칭하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일컫는 시각적 상징을 만들고 싶었어요. ‘너 없이는 못 산다’고 말하는 연인이라든지, 결코 떨어지기 싫어하는 엄마와 아기라든지, 치약에는 칫솔, 바늘에는 실처럼 우리 삶에서 분명 독립된 두 개체이지만 서로에 의지하지 못한다면 존재할 수 없는 운명공동체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떠올리며 만들게 된 작업입니다.

5. In "JUXQUILOGY II," you use four mannequins lying on each other's knees to create a stable structure. How did you come up with this idea, and what message do you hope to convey through the interdependence and cooperation depicted in this artwork?

해당 조각은 분명 균형을 이루며 서있습니다. 그러나 그 균형은 개별 마네킹들이 서로에 의지함으로써 가능하죠. 한 마네킹이 무너진다면, 연쇄적으로 전체의 균형이 깨져 무너지게 됩니다.

저는 개인의 존망을 곧 집단의 존망과 직접적으로 연결 지어질 때, 개인에게 드리워지는 막중한 책임감을 시각화하고

싶었어요.

그러한 책임감은 때론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고픈 누군가를 강제로 붙들어매는 공포스러운 사슬이 되죠. 아마 누군가에게나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에게는 제가 지켜야 할 어머니와 여자친구가 그런 존재이죠. 그리고 그런 소중한 사람들 때문에 절망과 희망 사이의 어중간한 공간에서 피할 수 없이 고통을 받아야만 하죠. Juxquilogy라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의 정의를 저의 그런 작업들을 통해 유추해 보셨으면 합니다.

6. Both "THE LOVERS" and "JUXQUILGY II" challenge the boundaries that separate individuals from one another. What inspired you to question these distinctions in your art, and how do you think the viewer's perception of their relationships with others might be influenced by engaging with these pieces?

나와 너의 분별을 지우자는 것이 제 작업의 주된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제가 만든 많은 작업들에 그러한 주제를 가진 작업들이 많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친구를 마음껏 사귀고 그들과 실컷 함께해도 괜찮았어요. 그러나 성인이 되어가면서 그렇게나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어려울 때가 많죠.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표현이 딱 적절한 것 같아요.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를 찌르고 멀어지면 외롭죠. 이런 감정들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를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것이 스무 살 성인이 된 어린 저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대학에 가면서 경계선 인격장애를 갖게 되어 괴로워하기도 했죠. 물론 서른이 된 지금에도 사람을 대하는 게 마냥 편하고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에요. 아마 평생에 걸쳐 풀어야 할 숙제가 될 것 같네요. 저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제 작품을 보신다면 저와 일종의 심리적 연결고리가 생길 것 같습니다.

7. Can you discuss your choice to use the non-existent word 'JUXQUILGY' as a title for your works? How does this decision contribute to the overall experience and interpretation of your art?

저는 일상을 살면서 느끼는 체험이나 감정들이, 그것을 적절히 설명해낼 단어가 존재하지 않아 빠르게 휘발되어 버리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예술가로서 제가 하는 일은 삶을 살며 느끼는 그러한 체험이나 감정들에 그것들과 어울리는 이름을 붙여 기록하는 일이에요.

아마 UAAD에는 소개해드린 적이 없지만 저는 21년도 8월부터 지금까지 대략 450개 정도의 단어를 꾸준히 만들어 오고 있어요. (<https://shorturl.at/dEFIJ>)

그러한 단어들 중에 가끔은 제가 내린 언어적 정의만으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거나, 혹은 우리 사회에 어떤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있죠. 그럴 때에 저는 그것들을 예술작품으로써 시각화하여 그 존재 자체를 viewer들에게 드러냅니다.

Juxquilogy가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시해 드린 Juxquilogy II 말고도 현재 진행 중인 Juxquilogy 시리즈들은 공통적으로 죽음보다 괴기한 살아있음을, 절망보다 암울한 희망을, 버티고 서있음이 쓰러짐보다 비극적인 모습을 시각화하고 있어요. 이렇듯 '나는 살아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완전하지 못한 <삶과 죽음이 중첩되어 있는> 오늘날의 저와 제 또래의 모습들을 그린 자화상을 Juxquilogy라는 단어에 담았죠.

8. In your exploration of the world beyond language, have you discovered any new insights or inspirations that have significantly impacted your understanding of the world or your artistic practice?

위의 질문에서 저는 "쉽사리 떠올랐지만 그것을 지칭할 수 있는 언어가 없으므로 개념이 휘발되어버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건 저만 느끼는 체험이 아니에요. 모두들 갓 깨어났을 때 기억하는 꿈의 기억이 몇 초도 지나지 않아 마치 설탕 조각이 바닷물에 빠져 사르르 녹아버리듯 휘발되어버리는 것을 경험하죠.

흔히 길이 먼저 존재하고, 그것을 지칭하기 위해 '길'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저는 점점 '길'이라는 단어가 존재했기에 우리가 길을 인지할 수 있었다는 쪽으로 사고가 바뀌어 가고 있어요.

다시 말해 ‘길’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세상에 길은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단어를 만들어가면서 저는 확실히 제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언어를 만들면 그것이 지칭하는 대상이 실재하는 것처럼 살아난다.”
이것이 제가 작업을 거듭해 나가면 느끼고 있는 생각이예요.
혹은 그 반대로 우리가 느끼고 인지하는 실재하는 세상이라는 게 결국 말장난이 빚어낸 환상인지도 모르죠.

9. Your work has been exhibited in numerous museums in Korea, including Seosomun Shrine Museum and CICA Museum. How have these exhibitions shaped your artistic practice, and what impact have they had on your career?

운이 좋게도 제 첫 전시를 서소문 성지 박물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학교에서 작업만 만들었던 학생인 저에게는 미술이란 오직 작가와 청중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해왔죠. 그러나 museum 단위의 기관들과 접촉하게 되면서 저는 예술가로서 살아가는 데에는 그 밖에도 큐레이터와 여러 관계자들과의 만남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죠. 작품을 만들 때의 자아와, 만든 작품을 기관에 팔거나 전시할 때의 자아가 분리되는 느낌이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느낌이랄까요? 이러한 경험들은 저로 하여금, 나의 자아를 작업실 안에서나 밖에서나 동일하게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느끼게 하였습니다. 진짜 예술가로 내 삶 전체를 점철 지어 살아가는 법에 대해 지금까지 배워오고 있는 중입니다. 더욱더 제 작업에 대해 진솔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10. Lastly, how do you envision the future of your artistic practice, and are there any new themes or media you would like to explore in your upcoming works?

과거의 저는 오로지 프로그래밍이 들어가는 미디어아트 작품만을 고집하여 만들어왔습니다. 그러나 after I came to understand that what truly defines an artist is the message they are trying to express, 저는 제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적절한 매체라면 제가 설사 익숙하지 않은 매체라 하더라도 겁 없이 사용하는 방향으로 그간 작업을 이어왔죠. 그 결과, 미디어아트부터 시작해서 행위예술, 레디 메이드, 조각, 개념예술까지 다방면의 시도를 통한 작품들을 만들어왔습니다. 매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가 중요하죠. Juxquilogy에 이어 현재 제가 주목하고 있는 또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아직 단어화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의 정의를 설명하자면 ‘신의 입장에서 세상을 조망하다’ 정도가 될 것 같네요.

보이저호가 태양계를 벗어나며 찍은 지구의 사진은 끝없이 광대한 검은 우주 속 Pale Blue Dot에 지나지 않았습다. 그 작디작은 점 속에서 정치며 경제며 종교며 우리가 울고 웃는 희로애락이 담겨있다는 게 너무나 이질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작업이 제 앞으로 여름 동안의 일이 될 것 같습니다.